2024년도
성의식 실태조사 보고서

성의식 실태조사

- ERICA 학부 재학생을 중심으로 -

2025. 2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
HANYANG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보고서 목차

제 1 장 조사목적 및 필요성 ····· 3

제 2 장 성희롱·성폭력 ····· 4

제 1 절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 4

제 2 절 성희롱·성폭력의 발생 현황 ····· 4

제 3 장 조사방법 ····· 7

제 1 절 조사대상 및 절차 ····· 7

제 2 절 조사내용 ····· 7

제 3 절 분석방법 ····· 8

제 4 장 조사결과 ····· 9

제 1 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 9

제 2 절 성폭력 통념 ····· 11

제 3 절 인권센터 인지도 및 사건처리에 대한 인식 ····· 13

제 4 절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 16

제 5 절 자유 응답 내용 ····· 25

제 5 장 결론 및 제언 ····· 31

제 1 절 결론 ····· 31

제 2 절 제언 ····· 32

<참고 문헌> ····· 34

<부록> 성의식 실태조사 설문지 ····· 36

표 목 차

<표 1> 조사 문항 ····· 7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 9

<표 3> 조사대상자의 단과대학별 성별 및 국적 빈도 ····· 10

<표 4> 성폭력 통념 문항 ····· 11

<표 5> 성폭력 통념 전체 평균····· 12

<표 6> 성별에 따른 성폭력 통념 비교 ····· 12

<표 7> 인권센터 인지도에 대한 집단 간 비교 ····· 13

<표 8>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인식 ····· 14

<표 9> 사건처리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 15

<표 10>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 16

<표 11>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집단 간 비교 ····· 17

<표 12> 성희롱·성폭력 피해유형 ····· 18

<표 13> 가해자의 특성 ····· 20

<표 14> 피해발생 장소 ····· 21

<표 15> 피해발생 시 대처방식 ····· 22

<표 16> 피해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 ····· 24

<표 17> 피해회복 지원 ····· 25

그 림 목 차

<그림 1> 사건처리에 대한 인식 ····· 15

<그림 2> 사건처리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 16

<그림 3>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 17

<그림 4> 성희롱·성폭력 피해유형 ····· 19

<그림 5> 가해자의 특성 ····· 20

<그림 6> 피해발생 장소 ····· 21

<그림 7> 피해발생시 대처방식 ····· 23

<그림 8> 피해회복에 대한 지원 ····· 25

제 1 장 조사목적 및 필요성

대학은 교원, 직원,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구성원 간 복잡한 양상의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권력관계에 기반해 문제제기가 힘들고 위계관계를 기반으로 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뿐 아니라 노동권과 교육권 침해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특히 구성원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위계 구조상 하단에 위치하여 즉각적인 문제제기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워 대학 성사건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민감하고 깊이 있는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 내 성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초 미투(#MeTOO)운동을 필두로 대학 내 움츠리고 있던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이를 지지하는 연대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사실 미투 이전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은 1:1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 신고되고 있으며 학내의 기구뿐 아니라 사법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신고접수 경로가 다양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1]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일함과 심각성을 수면위로 드러냈다. 대학 역시 이러한 성범죄 유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단체 대화방(이하 단톡방)내에서의 성희롱 사건이 여러 대학에서 상당한 이슈가 되었다. 단톡방 성희롱은 주로 여성(혹은 남성)을 성적 대상화하여 주변의 어떤 여성(혹은 남성)이라도 단톡방 속에서 거론될 수 있으며 왜곡된 성의식을 드러낸다는 점 때문에 개인 간 대화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래에는 불법촬영과 딥페이크[2] 등의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대학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모두가 안전한 교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사건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중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건발생 이후의 사건조사 및 처리,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성인지 감수성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내에 성사건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기에 대학 내 피해 현황에 대한 파악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피해현황을 살펴보고 학내 인권기구에 대한 인식을 점검, 인권센터의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여 성평등한 대학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

1) 2019년 2월경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 및 유포한 디지털성범죄 사건, 나무위키 (2025.2.14.검색)

2) 딥러닝(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로,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나무위키 (2025.2.14. 검색)

제 2 장 성희롱・성폭력

제 1 절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심리적, 사회문화적, 여성학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성폭력의 유형이나 범위도 견해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행위 유무가 성폭력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성희롱은 행위를 규정하는 법률과 보호법익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성폭력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로서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이 해당한다.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3].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희롱을 기본 정의로 언급하고 있으며,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각 대학마다 마련된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이 상이하여 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과 정의를 법령 등을 기초로 구별하여 적시한 경우와 성희롱을 보다 큰 개념으로 보고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 혹은 그 반대로 성폭력을 상위개념으로 두고 그 안에 성희롱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이처럼 성희롱과 성폭력 행위가 법령상 구분되어 있으나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가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제 2 절 성희롱・성폭력의 발생 현황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현황과 관련하여「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는 38,698건, 인구 10만명당 75.4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성폭력범죄의 발생비는 지난 10년 동안 29.6% 증가하였다. 강력범죄(흉악)중 살인, 강도, 방화범죄의 발생비는 지난

3) 교육부,「학교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2019.

10년 대비 감소한 반면 성폭력범죄의 발생비는 약 1.3배 증가하였다. 강력범죄(흉악)발생건수 중 성폭력범죄의 비중은 2014년 87.5%에서 2023년 93.7%로 6.2% 높아져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4].

성폭력은 대표적인 젠더폭력으로 알려져 있다. 1993년 제48차 유엔 총회에서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을 채택한 이후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또는 젠더폭력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젠더기반폭력이란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개인이 경험하는 우연한 불운이나 개인들 간에 발생한 사적인 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사회구조에 내재된 불평등한 권력 관계와 성역할 규범에 기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 근절과 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적 책무라는 점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성가족부의 2022년 여성폭력통계[6]에 따르면 여성의 평생 여성폭력피해[7] 경험률은 34.9%, 그 중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폭력피해경험은 16.1%, 교제폭력 피해 경험은 5%, 스토킹 피해 경험은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서도 피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6,703건(전체의 17.3%), 여성이 31,995건(전체의 82.7%) 발생하여 여성피해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연령과 관련해서는 2023년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서 21세~30세(41.8%)가 가장 많아 대학생활 시작부터 졸업, 사회초년생으로 진입한 시기로 볼 수 있어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2022년 7월 전국 대학 성관련 사건 현황 조사[8]에 따르면 대학에서의 성사건은 2018년 321건, 2019년 348건, 2020년 196건, 2021년 215건, 2022년 120건으로 총 1,200건이었으며, 발생유형으로는 언어·신체의 성희롱이 570건(47.5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추행과 성폭력도 각각 316건(26.33%)과 242건(20.1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유형은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714건으로 가장 빈번했고,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62.0%(744건)로 가장 많았으며, 교수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25.75%(309건)를 차지했다. 이외 교직원이 9.0%(108건)로 나타났고, 타교 직원이나 외주업체 직원 등 학사 관련 종사자가 아닌 경우(1.58%, 19건)도 있었다. 피해자 역시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학생인 비율이 87.25%(1047건)로 압도적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처럼 대학에서도 구성원 간 다양한 유형의 성

---

4) 대검찰청 2023년 범죄분석통계

5) UN Women, *Handbook for national action plans on violence against women*, 2012.

6) 여성가족부 2022년 여성폭력통계

7)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범죄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함.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함(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여성폭력 피해자란 이러한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함(여성폭력방지기본법).

8)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실 자료

폭력이 지속하여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최근 들어서는 전통적인 성범죄 유형에서 더 발전된 '통신매체이용음란', '음란물 유포', '촬영물 등 이용협박·강요' 등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9]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가 10,605건으로 2021년 대비(5,079건) 2배 증가하여 디지털성범죄 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10], 2023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가 23,107건으로 2022년 대비(7178건) 약 3.2배가 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대학 역시 불법촬영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의 변화와 흐름에 발맞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공간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

10)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2023.

제 3 장 조사방법

제 1 절 조사대상 및 절차

본 조사의 대상은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의 학부 재학생' 이다. 2024년 2학기 학적 등록 상태에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실시하여 외국인학생들의 참여를 장려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으며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조사대상자에게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해 안내였다. 설문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보고식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24년 9월 30일까지 수거된 설문지는 총 392부(남성 133명, 여성 256명, 기타 3명)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분석 작업을 실시하였다.

제 2 절 조사 내용

본 조사에서 활용한 문항은 <표 1>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파악을 위한 기초정보를 수집하였다. 성폭력 통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이석재(1999)의 강간통념 문항에서 여성행동에 대한 오해 3문항,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 2문항을 선정해 활용하였다. 인권센터와 대학에 대한 인식 및 역할 확립을 위해 인권센터 인지도, 대학의 사건처리 및 예방노력, 사건처리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등 6문항이 선정되었다. 학생들의 피해발생 현황과 그에 따른 대처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유무, 피해의 유형, 가해자의 특성, 피해발생 장소, 피해 발생시 대처방식 등의 14문항이 포함되었다. 기타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예방교육에 대한 의견과 인권센터에 바라는 점으로 조사내용이 구성되었다.

<표 1> 조사 문항[11)]

분류	문항
기초정보(5)	성별, 연령, 학년, 소속, 국적 (5문항)
성폭력 통념(5)	-여성행동에 대한 오해 (3문항)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 (2문항)
인권센터 및 사건처리에 대한 인식(6)	-인권센터 설치 인식(1문항)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예방 및 처리 인식(4문항)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1문항)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14)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유무(1문항) -피해 유형(1문항)

	-가해자 특성(2문항) -발생장소(1문항) -발생시 대처방식(1문항) -문제제기 하지 않은 이유(1문항) -문제제기 시 인권센터 만족도(2문항) -피해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1문항)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1문항) -인권센터 도움 요청 의향(3문항)
기타 (2)	-예방교육에 대한 의견(1문항) -인권센터에 바라는 점(1문항)

제 3 절 분석방법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7.0을 활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에 따른 자료 분석은 성별, 학년별, 소속별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성폭력 통념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를 활용하여 집단 간 평균비교 및 문항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척도의 특성에 따라 집단 간 비교를 위한 교차분석(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11) 부록 참고

제 4 장 조사결과

제 1 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조사에서 수집한 총 표본 수는 392명으로 여성이 256명(65.3%), 남성이 133명(33.9%), 기타 성별이 3명(0.8%)였다. 연령은 19세에서 29세가 387명(98.7%)으로 가장 많았고, 30세에서 39세가 5명(1.3%)로 나타났다. 학년은 3학년이 110명(2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학년 104명(26.5%), 4학년이 101명(25.8%)순으로 나타났다. 소속은 공과대학이 91명(23.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제문화대학이 68명(17.3%), 경상대학이 60명(15.3%),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이 44명(11.2%)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의 국적은 한국이 298명(7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이 84명(21.4%), 몽골 4명(1%), 우즈베키스탄이 2명(0.5%), 그 외 일본, 베트남, 미얀마, 브라질이 각각 1명(0.3%)으로 확인되었다. 단과대학별 응답자의 성별 및 국적비율을 확인한 결과 언론정보대학은 여성비율이 28명(8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디자인대학이 26명(83.9%)로 나타났다. 국적은 단과대학마다 다양하게 분포되었으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디자인대학으로 응답자의 18명(58.1%)가 중국인 유학생으로 확인되었으며, 언론정보대학은 응답자의 15명(45.4%)가 외국인 학생으로 파악되었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분류	빈도	비율
성별 (*n=392*)	남	133	33.9
	여	256	65.3
	기타	3	0.8
연령 (*n=392*)	19세-29세	387	98.7
	30세-39세	5	1.3
학년 (*n=392*)	학부 1학년	104	26.5
	학부 2학년	74	18.9
	학부 3학년	110	28.1
	학부 4학년	101	25.8
	학부 5학년	3	0.8
소속 (*n=392*)	공과대학	91	23.1
	소프트웨어융합대학	44	11.2
	약학대학	7	1.8
	과학기술융합대학	41	10.5
	국제문화대학	68	17.3

	언론정보대학	33	8.4
	경상대학	60	15.3
	디자인대학	31	7.9
	예체능대학	14	3.6
	기타	3	0.8
국적	한국	298	76.0
	중국	84	21.4
	일본	1	0.3
	몽골	4	1.0
	우즈베키스탄	2	0.5
	베트남	1	0.3
	미얀마	1	0.3
	브라질	1	0.3

<표 3> 조사대상자의 단과대학별 성별 및 국적 빈도 (단위: 명, %)

구분		공과대	소프트웨어	약학	과학기술융합	국제문화	언론정보	경상대	디자인	예체능	기타
성별	남성	43 (47.3)	26 (59.1)	2 (28.6)	17 (41.5)	11 (16.2)	4 (12.1)	18 (30.0)	4 (12.9)	6 (42.9)	2 (66.7)
	여성	47 (51.6)	18 (40.9)	5 (71.4)	24 (58.5)	57 (83.8)	28 (84.8)	42 (70.0)	26 (83.9)	8 (57.1)	1 (33.3)
	기타	1 (1.1)	0 (0.0)	0 (0.0)	0 (0.0)	0 (0.0)	1 (3.0)	0 (0.0))	1 (3.2)	0 (0.0)	0 (0.0)
	전체	91 (100.0)	44 (100.0)	7 (100.0)	41 (100.0)	68 (100.0)	33 (100.0)	60 (100.0)	31 (100.0)	14 (100.0)	3 (100.0)
국적	한국	83 (91.2)	38 (86.4)	7 (100.0)	40 (97.6)	45 (66.2)	18 (54.5)	44 (73.3)	13 (41.9)	10 (71.4)	2 (66.7)
	중국	6 (6.6)	5 (11.4)	0 (0.0)	1 (2.4)	20 (29.4)	14 (42.4)	16 (26.7)	18 (58.1)	4 (28.6)	1 (33.3)
	미얀마	1 (1.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브라질	1 (1.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몽골	0 (0.0)	1 (2.3)	0 (0.0)	0 (0.0)	1 (1.5)	0 (0.0)	0 (0.0)	0 (0.0)	0 (0.0)	0 (0.0)
	일본	0 (0.0)	0 (0.0)	0 (0.0)	0 (0.0)	1 (1.5)	0 (0.0)	0 (0.0)	0 (0.0)	0 (0.0)	0 (0.0)
	우즈베키스탄	0 (0.0)	0 (0.0)	0 (0.0)	0 (0.0)	1 (1.5)	0 (0.0)	0 (0.0)	0 (0.0)	0 (0.0)	0 (0.0)
	베트남	0 (0.0)	0 (0.0)	0 (0.0)	0 (0.0)	0 (0.0)	1 (3.0)	0 (0.0)	0 (0.0)	0 (0.0)	0 (0.0)
	전체	91 (100.0)	44 (100.0)	7 (100.0)	41 (100.0)	68 (100.0)	33 (100.0)	60 (100.0)	31 (100.0)	14 (100.0)	3 (100.0)

제 2 절 성폭력 통념

본 조사에서 사용한 성폭력 통념은 다른 말로 강간통념(rape myth)으로 불리는 개념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편향된 사고이며 통상 가부장적이고 남성주의적 사회에서 통용되는 왜곡된 인지사고로 볼 수 있다. 성폭력통념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성적 경험, 여성행동에서 오는 오해, 성폭행 피해에 대한 책임 귀인, 피해자의 경솔함 등이 제시된다.[12] 성폭력 통념은 성폭력 가해의 예측요인 혹은 가해자의 특성으로 지목되고,[13] 때로는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성적 공격성을 정당화하게 되는 기제가 되기도 하며[14], 여성의 성적 의도를 잘못 인식함으로써 성폭행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고되어 성폭력과 관련성이 높은 요인이다[15].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 여성의 70%이상, 남성의 53-60%가 이성이 우정에서 나오는 행동을 성적인 것으로 잘못 인식한 적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16], 남성은 이성의 성적의도를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평등적 태도가 요구되는 오늘날에도 전통적 남녀 역할에 대한 기대와 강간통념이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의 성적 관심을 잘못 해석하거나 과도하게 평가하게 만든다고 보았다[17]. 또한 남성이 지니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와 강간통념 등이 높을수록 여성의 성적의도를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되며, 이러한 경향성은 성희롱, 성폭행과 연결됨으로써 성적 침해와 괴롭힘 행동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본교 재학생들의 성폭력 통념과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Burt(1980)가 개발한 척도를 보완 수정한 이석재(1999)의 강간통념 척도(Rape Myths Scale)에서 <표 4>과 같이 '여성행동에 대한 오해' 3요인,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2요인을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본 문항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성(gender)에 기반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요인들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 통념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즉,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성폭력 통념 문항

구분		문항
문항1	여성	1.여자가 친근감 있게 남자를 대하는 것은 성적 접촉을 허용한다는 표시다.

12) 이석재,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제13권 제2호, 한국심리학회, 1999.
13) 김재엽 외 3인, "음란물 이용과 사회적 교류가 성인 남성의 강간통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46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원, 2015.
14) Lonsway, K. A. & Fitzgerald, L. F., "Rape myths in re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18(2), 1994.
15) 이명신 "성희롱(Sexual Harassment)의 재정의: 남녀대학생의 강간통념, 성희롱 인식, 성적 괴롭힘 행동을 중심으로 경험적 재구성", 「젠더와 문화」 제7권 제1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4.
16) Angela J. Jacques-Tiura & Michele R. Parkhill & Tina Zawacki, "Why Do Some Men Misperceive Women's Sexual Intentions More Frequently Than Others Do? An Application of the Confluence Mode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33(11), 2007.
17) Leana A. Bouffard & Jeffrey A. Bouffard "Understanding Men's Perception of Risks and Rewards in a Date Rape Scenario",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Vol.55(4), 2011.

	행동에 대한 오해	2.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그와의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3.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락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문항2	피해자 책임 전가	1.노출이 심한 여성의 옷은 성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2.여자가 모르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다가 성폭력을 당했다면 그 여자의 잘못이다.

분석결과 성폭력 통념 문항의 전체 평균은 4.40으로, 학생들이 상대방의 성적의도를 잘못 인식하는 태도는 많지 않다고 해석된다. 즉 평균이상의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문항 1-3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락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는 평균 3.85로 확인되어 다른 요인의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점이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른 성폭력 통념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 문항1-1($F=6.499$, $p<.01$), 문항1-2($F=3.323$, $p<.05$), 문항1-3($F=8.934$, $p<.001$), 문항1-4($F=5.778$, $p<.01$), 문항1-5($F=3.386$, $p<.05$)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성인지 감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문항 1-3의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락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가 가장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대의 행동에 대한 일방적 판단보다 존중과 배려를 통한 '성적 관계에서의 동의' 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함이 필요해 보인다.

<표 5> 성폭력 통념 전체 평균

항목	문항 1-1	문항 1-2	문항 1-3	문항 2-1	문항 2-2	전체
평균	4.40	4.31	3.85	4.49	4.66	4.40

<표 6> 성별에 따른 성폭력 통념 비교 (단위: 명, %)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p
문항1-1	남성	133	4.20	.919	6.499**	.002
	여성	256	4.50	.736		
	기타	3	4.00	1.000		
문항1-2	남성	133	4.15	.989	3.323*	.037
	여성	256	4.40	.889		
	기타	3	4.00	1.000		
문항1-3	남성	133	3.53	1.158	8.934***	.000
	여성	256	4.02	1.044		
	기타	3	3.33	1.528		
문항1-4	남성	133	4.32	.793	5.778**	.003
	여성	256	4.59	.686		

	기타	3	4.33	1.155		
문항1-5	남성	133	4.56	.690	3.386*	.035
	여성	256	4.71	.534		
	기타	3	4.33	1.155		

*p<.05, **p<.01, ***p<.001

제 3 절 인권센터 인지도 및 사건처리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본교 재학생들의 인권센터에 인지도와 우리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 능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인권센터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 인권센터 인지도

본 문항은 우리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전혀 모른다(1점)~매우 잘 안다(5점)의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매우 잘 안다'가 49명(12.5%), '잘 안다'가 88명(22.4%)으로 나타나 총 137명(34.9%)의 재학생들이 인권센터에 대한 인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가 전체 응답자의 156명(39.5%)으로 상당수의 재학생이 인권센터의 설치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접하였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원활한 정보제공을 받을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권센터가 교내의 구제기구로서의 역할확립 및 접근성 강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인권센터 인지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소속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년(F=2.742,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저학년은 고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동안 학교에 다니고 있으므로, 다년간 인권센터 교육 및 홍보물을 접한 고학년들에 비해 인식 수준이 낮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으로 인권센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7> 인권센터 인지도에 대한 집단 간 비교 (n=392)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p
성별	남성	133	2.92	1.309	6.499	.164
	여성	256	3.13	1.169		
	기타	3	2.33	2.309		
학년	1학년	104	2.75	1.229	2.742*	.028

	2학년	74	2.82	1.163		
	3학년	110	3.05	1.284		
	4학년	101	3.16	1.184		
	5학년*	3	1.66	.577		
소속	공과대학	91	3.13	1.213	1.076	.380
	소프트웨어융합대학	44	3.23	1.217		
	약학대학	7	2.57	1.134		
	과학기술융합대학	41	2.78	1.215		
	국제문화대학	68	2.94	1.303		
	언론정보대학	33	3.18	1.044		
	경상대학	60	2.88	1.303		
	디자인대학	31	3.23	1.175		
	예체능대학	14	3.36	1.277		
	기타	3	4.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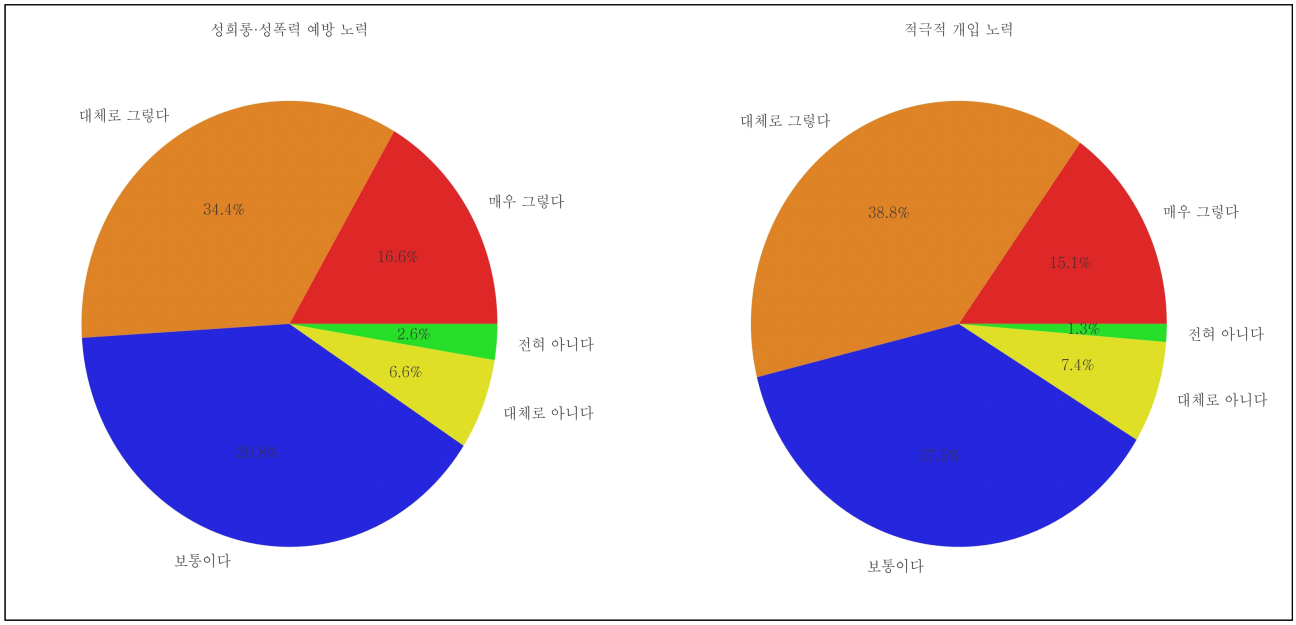
$^{*}p<.05$, $^{**}p<.01$, $^{***}p<.001$ *5학년은 외국인 학생으로 확인됨.

2) 성희롱・성폭력 사건예방과 개입 인식

본 문항은 우리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예방노력과 적극적 개입 및 지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매우 그렇다’가 65명(16.6%), ‘대체로 그렇다’가 135명(34.4%)으로 총 200명(51%)의 응답자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의 예방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사건 발생 시 잘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59명(15.1%), ‘대체로 그렇다’가 152명(38.8%)으로 총 211명(53.9%)의 응답자가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교가 잘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긍정적 응답을 하였다.

<표 8>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합계
성희롱・성폭력 예방노력	65(16.6)	135(34.4)	156(39.8)	26(6.6)	10(2.6)	392(100.0)
적극적 개입 노력	59(15.1)	152(38.8)	147(37.5)	29(7.4)	5(1.3)	392(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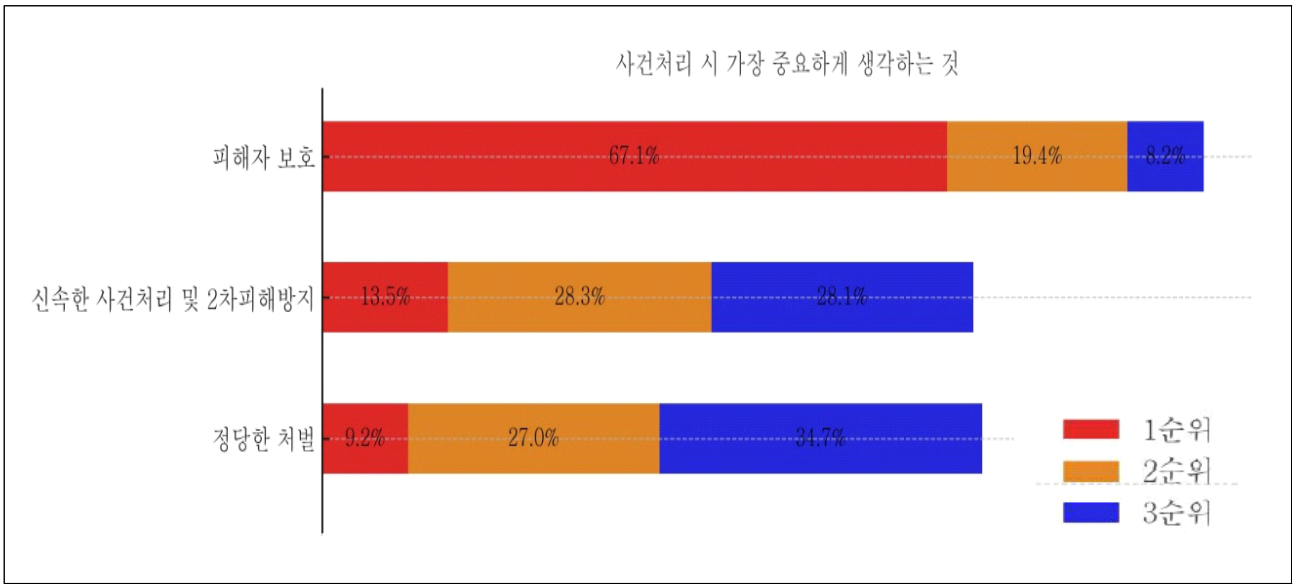
<그림 1> 사건처리에 대한 인식

3) 사건처리 시 가장 중요한 것(순위 응답)

본 문항은 사건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순위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을 살펴보았더니 1순위는 263명(67.1%)이 '피해자 보호' 라고 응답하였고, 2순위는 111명(28.3%)이 '신속한 사건처리 및 2차 피해방지' 라고 응답하였으며 3순위는 136명(34.7%)이 '정당한 처벌' 이라고 응답하였다.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가 경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을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성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으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는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행위에 합당한 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사건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9> 사건처리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단위: 명, %)

구분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정당한 처벌	신속한 사건처리 및 2차피해방지	공정한 사건처리	전체
1순위	263(67.1)	20(5.1)	36(9.2)	53(13.5)	20(5.1)	392(100.0)
2순위	76(19.4)	73(18.6)	106(27.0)	111(28.3)	26(6.6)	392(100.0)
3순위	32(8.2)	58(14.8)	136(34.7)	110(28.1)	56(14.3)	392(100.0)



<그림 2> 사건처리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제 4 절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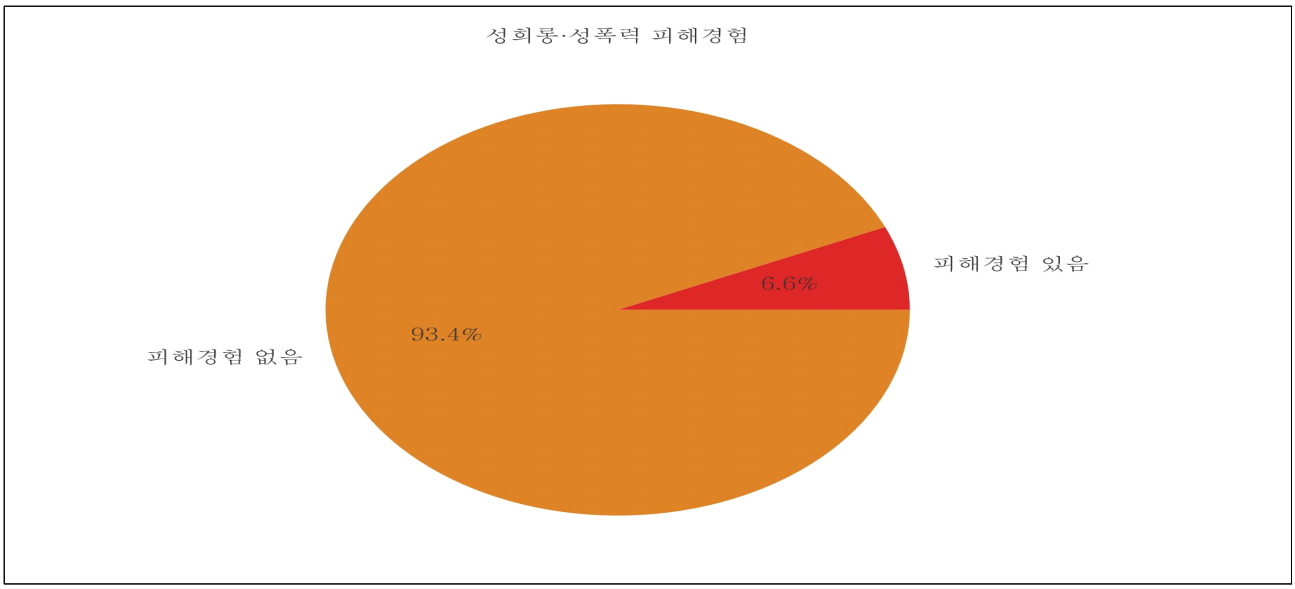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 피해 유형과 발생장소, 가해자의 특성, 피해발생 장소, 발생 시 대처방식,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에 대해 확인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현황파악 및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유무

성희롱·성폭력 경험 피해유무에 대해서는 <표 10>과 같이 응답자 중 전체의 26명(6.6%)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0>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단위: 명, %)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경험유무	있음	26	6.6
	없음	366	93.4
전체		392	100.0



<그림 3>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전체 응답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경험유무를 확인한 결과 남성은 경험 있음이 1명(3.8%)으로 응답한 반면, 여성은 24명(92.3%), 기타 성별은 1명(3.8%)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년별로는 4학년이 11명(42.3%)으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이 7명(26.9%), 1학년이 6명(23.1%)으로 확인되었다. 단과대학별로는 공과대학이 6명(23.1%), 디자인 대학이 6명(23.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과 소속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피해를 더 많이 입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11>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집단 간 비교 (단위: 명, %)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체	χ^2	p
성별 (*n=392*)	남	1(3.8)	132(99.2)	133(33.9)	13.990**	.001
	여	24(92.3)	232(90.6)	256(65.3)		
	기타	1(3.8)	2(66.7)	3(0.8)		
	합계	26(100.0)	366(100.0)	392(100.0)		
학년 (*n=392*)	학부 1학년	6(23.1)	98(26.8)	104(26.5)	5.514	.272
	학부 2학년	2(7.7)	72(19.7)	74(18.9)		
	학부 3학년	7(26.9)	103(28.1)	110(28.1)		
	학부 4학년	11(42.3)	90(24.6)	101(25.8)		
	학부 5학년	0(0.0)	3(0.8)	3(0.8)		
	합계	26(100.0)	366(100.0)	392(100.0)		

소속 (*n=392*)	공과대학	6(23.1)	85(23.2)	91(100.0)	16.200	.139
	소프트웨어융합	1(3.8)	43(11.7)	44(100.0)		
	약학대학	0(0.0)	7(1.9)	7(100.0)		
	과학기술융합대학	1(3.8)	40(10.9)	41(100.0)		
	국제문화대학	5(19.2)	63(17.2)	68(100.0)		
	언론정보대학	3(11.5)	30(8.2)	33(100.0)		
	경상대학	3(11.5)	57(15.6)	60(100.0)		
	디자인대학	6(23.1)	25(6.8)	31(100.0)		
	예체능대학	0(0.0)	14(3.8)	14(100.0)		
	기타	1(3.8)	2(0.5)	3(100.0)		
	합계	26(100.0)	366(100.0)	392(100.0)		

$^{*}p<.05$, $^{**}p<.01$, $^{***}p<.001$

2) 성희롱・성폭력 피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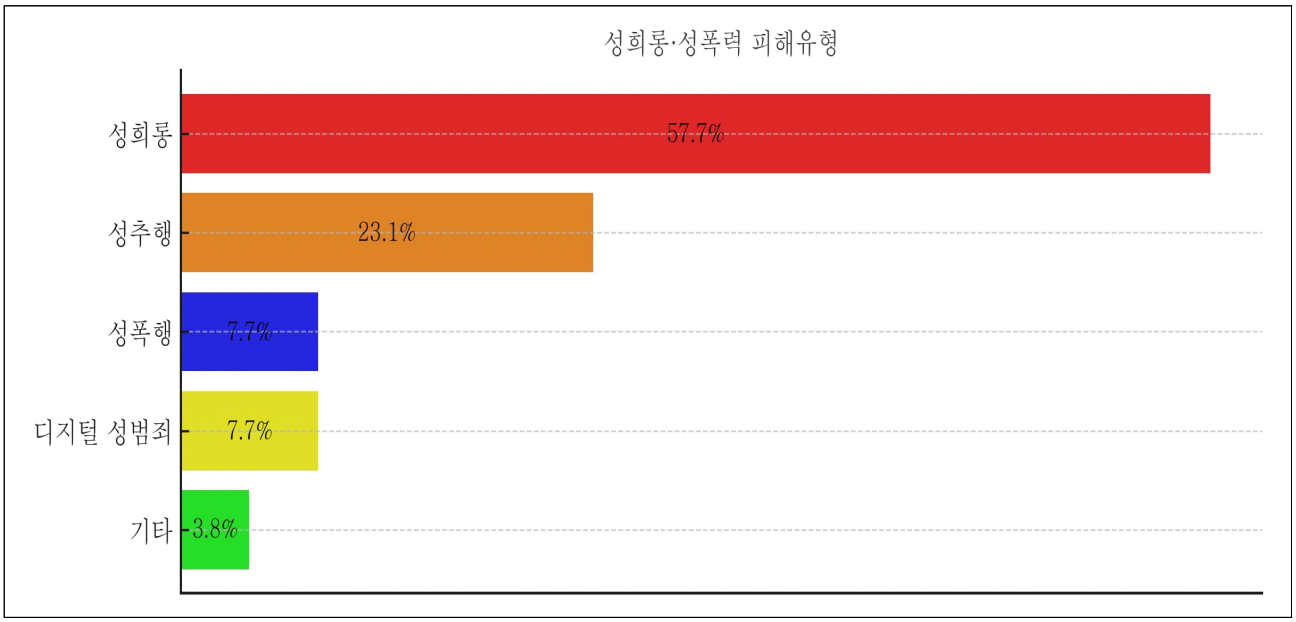
성희롱・성폭력 피해유형은 성희롱(언어적, 신체적, 시각적)이 15명(57.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추행이 6명(23.1%), 성폭행(강간 등)이 2명(7.7%),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등)이 2명(7.7%)으로 확인되었다. 성희롱은 범죄행위의 성립여부와는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행동과 요구 등이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성별과 학년, 소속에 따른 피해유형 차이의 유의성 판단을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p<.05$), 남성에 비해 여성이 다양한 유형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더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12〉 성희롱・성폭력 피해유형 (단위: 명, %)

구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디지털 성범죄	기타	전체	χ^2	p
성별 (*n=26*)	남	0(0.0)	1(100.0)	0(0.0)	0(0.0)	0(0.0)	1(100.0)	15.889*	.044
	여	15(62.5)	5(20.8)	1(4.2)	2(8.3)	1(4.2)	24(100.0)		
	기타	0(0.0)	0(0.0)	1(100.0)	0(0.0)	0(0.0)	1(100.0)		
	합계	15(57.7)	6(23.1)	2(7.7)	2(7.7)	1(3.8)	26(100.0)		

학년 (*n*=26)	학부 1학년	5(83.3)	1(16.7)	0(0.0)	0(0.0)	0(0.0)	6(100.0)		
	학부 2학년	2(100.0)	0(0.0)	0(0.0)	0(0.0)	0(0.0)	2(100.0)		
	학부 3학년	4(57.1)	1(14.3)	2(28.6)	0(0.0)	0(0.0)	(100.0)	13.336	.345
	학부 4학년	4(36.4)	4(36.4)	0(0.0)	2(18.2)	1(3.8)	11(100.0)		
	합계	15(57.7)	6(23.1)	2(7.7)	2(7.7)	1(3.7)	26(100.0)		
소속 (*n*=26)	공과대학	2(33.3)	2(33.3)	0(0.0)	2(33.3)	0(0.0)	6(100.0)		
	소프트웨어융합	0(0.0)	0(0.0)	1(100.0)	0(0.0)	0(0.0)	1(100.0)		
	약학대학	0(0.0)	0(0.0)	0(0.0)	0(0.0)	0(0.0)	0(0.0)		
	과학기술융합	1(100.0)	0(0.0)	0(0.0)	0(0.0)	0(0.0)	1(100.0)		
	국제문화대학	3(60.0)	2(40.0)	0(0.0)	0(0.0)	0(0.0)	5(100.0)		
	언론정보대학	1(33.3)	0(0.0)	1(33.3)	0(0.0)	1(33.3)	3(100.0)	35.042	.169
	경상대학	2(66.7)	1(33.3)	0(0.0)	0(0.0)	0(0.0)	3(100.0)		
	디자인대학	5(83.3)	1(16.7)	0(0.0)	0(0.0)	0(0.0)	6(0.0)		
	예체능대학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1(100.0)	0(0.0)	0(0.0)	0(0.0)	0(0.0)	1(100.0)		
	합계	15(57.7)	6(23.1)	2(7.7)	2(7.7)	1(3.8)	26(100.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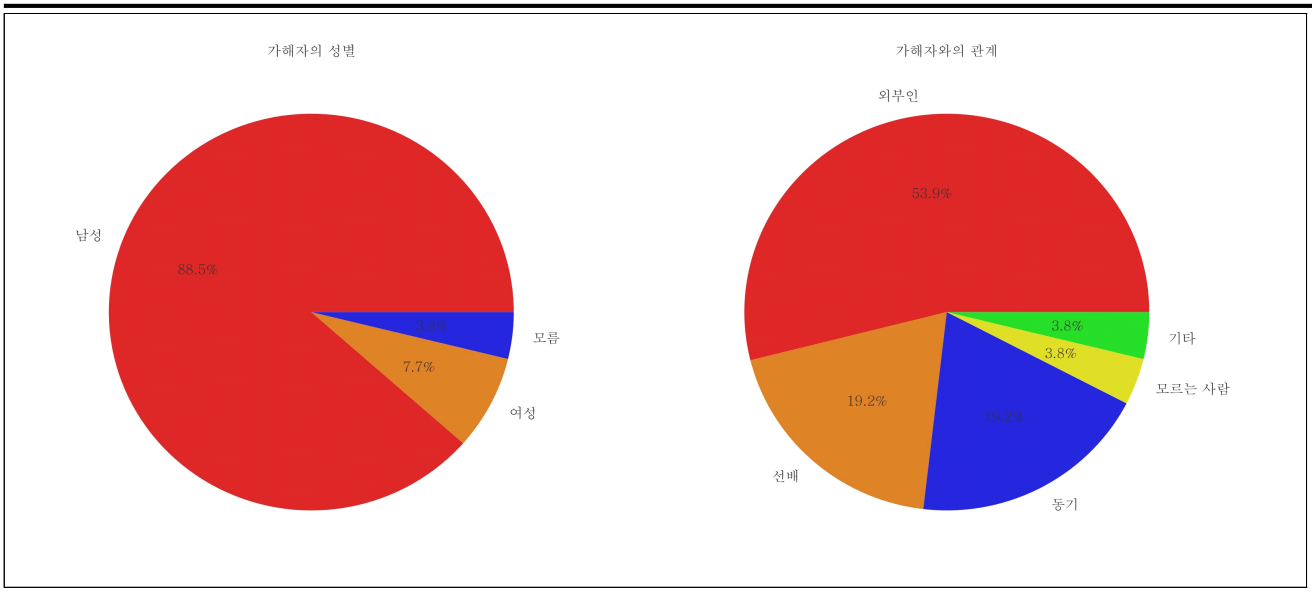
〈그림 4〉 성희롱・성폭력 피해유형

3) 가해자의 특성

가해자의 특성은 성별과 피·가해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23명(88.5%)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국가통계에서 남성 가해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추세이다. 당사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내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인 경우가 14명(5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선배인 경우와 동기인 경우가 각각 5명(19.2%)으로 교내에서는 주로 학생 간 사건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본 조사에서는 학내 구성원뿐 아니라 외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도움요청기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대처방안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피해발생에 대한 예방 및 적극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표 13> 가해자의 특성 (단위: 명, %)

구분	분류	빈도	비율
성별 (*n=26*)	남성	23	88.5
	여성	2	7.7
	모름	1	3.8
	전체	26	100.0
관계 (*n=26*)	선배	5	19.2
	동기	5	19.2
	외부인	14	53.8
	모르는 사람	1	3.8
	기타	1	3.8
	전체	26	100.0



<그림 5> 가해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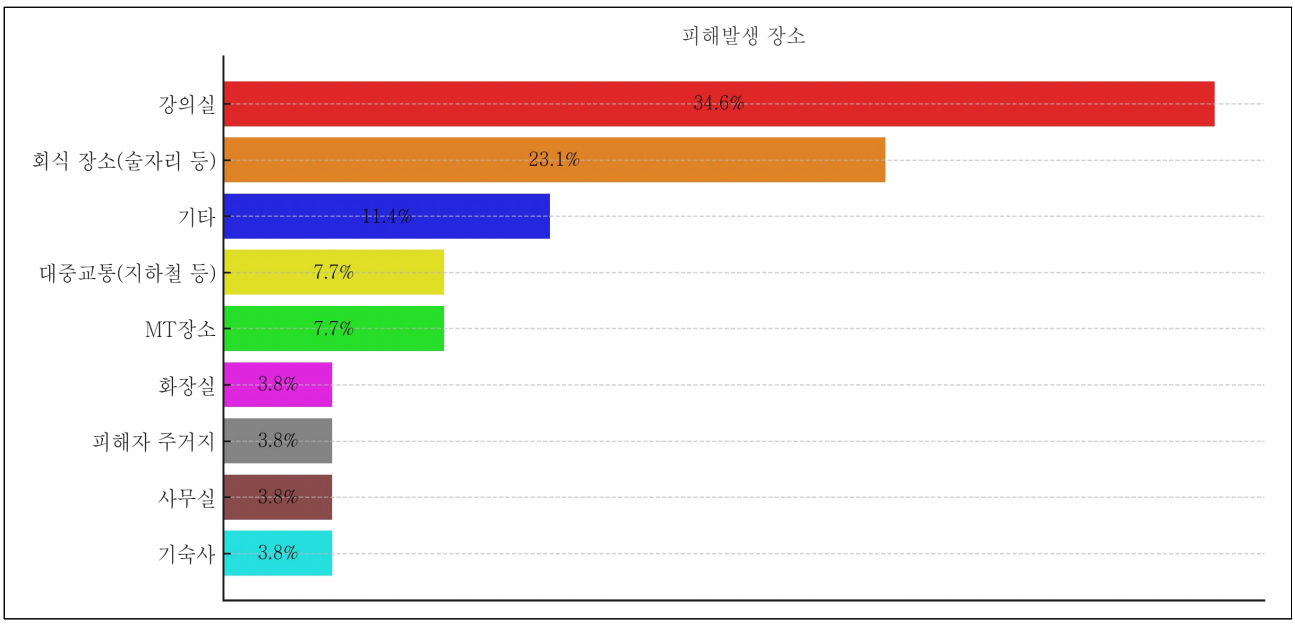
4) 피해발생 장소

성희롱·성폭력 피해발생장소는 학생들이 활동하는 다양한 장소로 나타났다. 강의실이 9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회식장소(술자리 등)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6명(23.1%)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MT장소가 2명(7.7%), 기숙사와 피해자의 주거지가 각각 1명(3.8%)으로 확인되었다. 피해는 교내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이 등하교를 위해 이동하는 대중교통(지하철 등)에서도 발생하였으며, 기타 장소로는 학원, 친구 집, 아르바이트 장소로 확인되었다.

〈표 14〉 피해발생 장소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강의실	9	34.6
대중교통(지하철 등)	2	7.7
화장실	1	3.8
기숙사	1	3.8
사무실	1	3.8
피해자 주거지	1	3.8
회식 장소(술자리 등)	6	23.1
MT장소	2	7.7
기타*	3	11.4
전체	26	100.0

*기타: 친구 집, 학원 등으로 확인됨



〈그림 6〉 피해발생 장소

5) 피해발생 시 대처방식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당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물은 결과 '참고 넘어갔다' 는 응답이 9명(34.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족 및 친구와 상의했으나 공식적인 문제제기나 전문기관에 적극적인 도움 요청을 하지 않았다' 는 응답이 8명(30.8%), 경찰신고는 7명(26.9%)으로 나타났다. '참고 넘어갔다' 와 '공식적 문제제기나 적극적 도움요청을 하지 않은' 응답자가 총 16명(61.5%)으로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피해발생시 적극적인 도움요청보다는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처란 스트레스가 되는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과 개인의 능력 손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반응하는 노력으로, 어떤 대처방식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후유증을 보이거나 삶에 적응하게 된다.[18]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방법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19] 회피 또는 비표현적 대처양식이 부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20] 반면, 문제 중심적인 대처와 적극적인 대처, 인지적 대처를 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인 적응이 더 높았다[21]. 이는 성폭력 피해를 이해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피해자는 보다 적은 심리적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의 원인을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는 자기비난적 귀인의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다.[22] 따라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심리, 정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피해자가 자기비난을 멈추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요청기관에 대한 정보인식, 상담 및 심리지원, 법률지원 등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별, 학년, 소속에 따른 피해발생 대처방식의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년과 소속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5$).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의 피해비율이 많고 주로 소극적 대처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15〉 피해발생시 대처방식 (단위: 명, %)

구분		경찰신고	주변인 상의	참고넘어감	기타	전체	χ^2	p
성별 (*n=26*)	남	0(0.0)	0(0.0)	0(0.0)	1(100.0)	1(100.0)	31.979***	.000
	여	6(25.0)	8(33.3)	9(37.5)	1(4.2)	24(100.0)		
	기타	1(100.0)	0(0.0)	0(0.0)	0(0.0)	1(100.0)		

18) Burt, M. R., & Katz, B. L., "Coping strategies and recovery from rape",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Vol.528(1), 1988.

19) Sarah E. Ullman & Henrietta H. Filipas & Stephanie M. Townsend & Laura L. Starzynski, "Psychosocial correlates of PTSD symptom severity in sexual assault survivor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20(5),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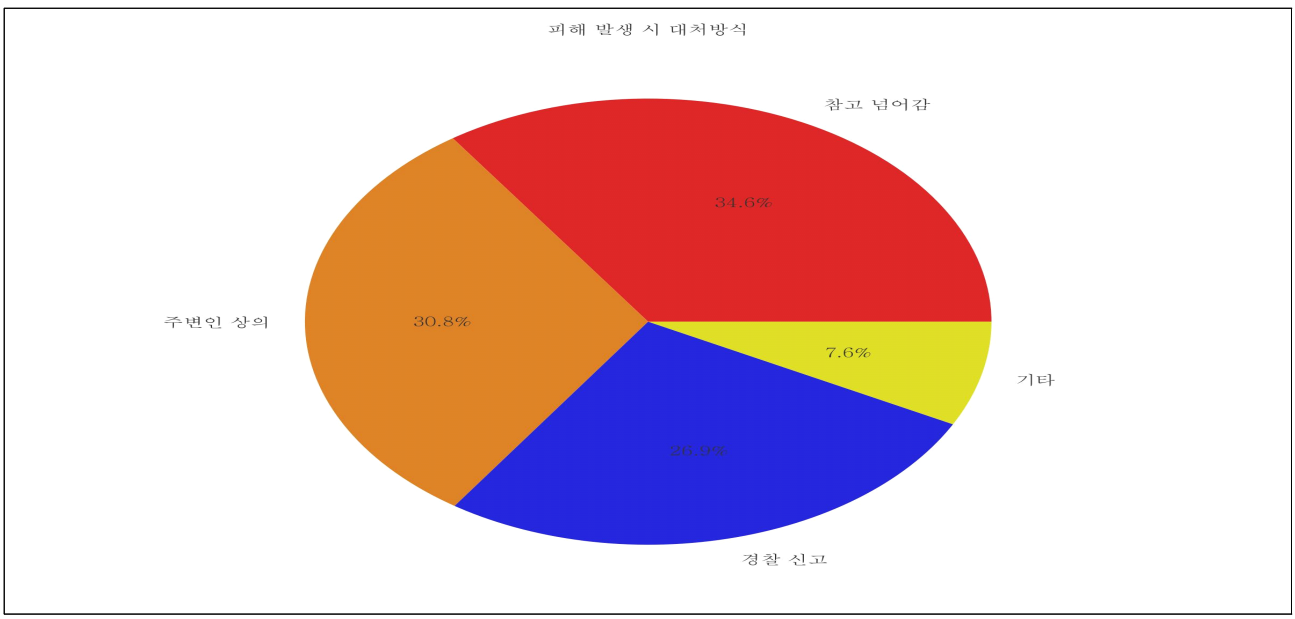
20) 권해수,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21) 권해수, 위의 논문

22) Kerstin Wenninger & Anke Ehlers, "Dysfunctional cognitions and adult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child sexual abuse survivor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11(2), 1998.

	합계	7(26.9)	8(30.8)	9(34.6)	2(7.6)	26(100.0)		
학년 (*n=26*)	학부 1학년	0(0.0)	3(50.0)	2(33.3)	1(16.7)	6(100.0)	17.538	.130
	학부 2학년	0(0.0)	2(100.0)	0(0.0)	0(0.0)	2(100.0)		
	학부 3학년	2(28.6)	0(0.0)	4(57.1)	0(0.0)	7(100.0)		
	학부 4학년	5(45.5)	3(27.3)	3(27.3)	0(0.0)	11(100.0)		
	합계	7(26.9)	8(30.8)	9(34.6)	2(7.6)	26(100.0)		
소속 (*n=26*)	공과대학	3(50.0)	0(0.0)	1(16.7)	2(33.4)	6(100.0)	25.004	.628
	소프트웨어융합	1(100.0)	0(0.0)	0(0.0)	0(0.0)	1(100.0)		
	약학대학	0(0.0)	0(0.0)	0(0.0)	0(0.0)	0(0.0)		
	과학기술융합	0(0.0)	0(0.0)	1(100.0)	0(0.0)	1(100.0)		
	국제문화대학	0(0.0)	3(60.0)	2(40.0)	0(0.0)	5(100.0)		
	언론정보대학	2(66.7)	0(0.0)	1(33.3)	0(0.0)	3(100.0)		
	경상대학	0(0.0)	1(33.3)	2(66.7)	0(0.0)	3(100.0)		
	디자인대학	1(16.7)	3(50.0)	2(33.3)	0(0.0)	6(100.0)		
	예체능대학	0(0.0)	0(0.0)	0(0.0)	0(0.0)	0(0.0)		
	기타	0(0.0)	1(100.0)	0(0.0)	0(0.0)	0(0.0)		
	합계	7(26.9)	8(30.8)	9(34.6)	2(7.6)	26(100.0)		

$^{*}p<.05$, $^{**}p<.01$, $^{***}p<.001$



<그림 7> 피해발생시 대처방식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문제제기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확인한 결과, 문제제기를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와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염려와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피해자 보호와 사건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가진 신뢰성 있는 구제기구로의 인식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6) 피해 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후 일상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수면장애, 불안, 우울 등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1명(42.3%)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다. 기타 가족 및 지인들의 왜곡된 시선이나 가해자와 비슷한 사람을 피하게 되는 등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5명(19.2%)으로 확인되었다. 충격적이거나 두려운 사건을 겪거나 목격 후에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설명될 수 있다.[23] 다양한 외상 사건 중 성폭력 피해자들이 PTSD의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4] 이들의 정신적 후유증은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등 일반집단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되고 있다[25].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은 다른 외상 경험과 달리 만성적이고 장기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26] PTSD 증상만이 아니라 수치심, 분노, 공포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도 동반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심리, 정서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발생 직후 피해자들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표 16> 피해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 (단위: 명, %)

구분	큰 어려움은 없었음	가족 및 지인들의 시선	심리.정서적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전체
가장 힘들었던 점	7(26.9)	3(11.5)	11(42.3)	5(19.2)	2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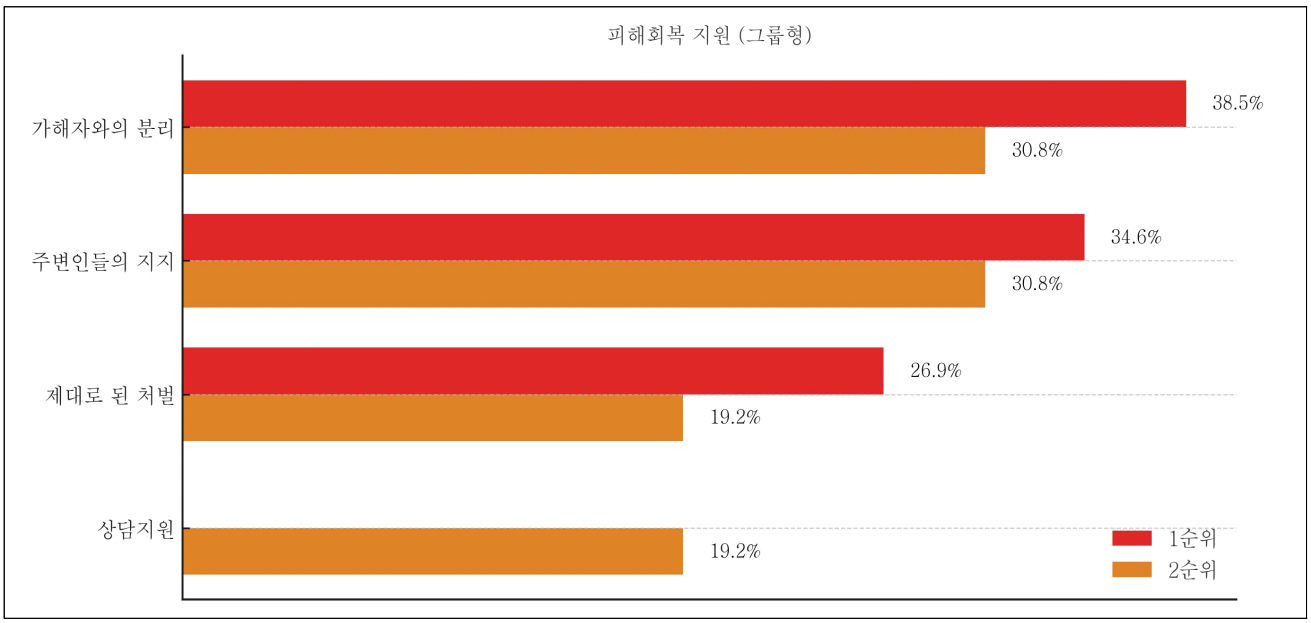
7) 피해회복 지원

23) Yank D. Coble & A. Bradley Eisenbrey & E. Harvey Estes & et al., “Violence against women: Relevance for medical practitioner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267(23), 1992.
24) Norris, F. H., “Epidemiology of trauma: frequency and impact of different potentially traumatic events on different demographic group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0(3), 1992.
25) 2011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미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보고서
26) Bifulco, A. & Brown, G. W. & Adler, Z., “Earlysexual abuse and clinical depression in adult life”,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159(1), 1991.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후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을 확인한 결과 '가해자와의 분리'가 10명(38.5%)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다. 2순위로는 8명(30.8%)이 주변인들의 지지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보호요인 역할을 하며, 사회적 욕구 충족을 통해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27] 이에 성폭력피해와 관련한 주변인의 지지는 피해회복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피해자에 대한 주변의 왜곡된 인식과 비난, 부정적 평가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함이 필요해 보인다.

<표 17> 피해회복 지원 (단위: 명, %)

구분	주변인들의 지지	제대로 된 처벌	상담지원	가해자와의 분리	전체
1순위	9(34.6)	7(26.9)	0(0)	10(38.5)	26(100.0)
2순위	8(30.8)	5(19.2)	5(19.2)	8(30.8)	26(100.0)



<그림 8> 피해회복에 대한 지원

제 5 절 자유 응답 내용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개선의견

27) Park, J. W.,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1985.

본교에서는 교내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해 연중 온라인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구성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교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에 효과적인 예방교육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았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내에서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 예방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하면 상품을 주는 등 참여를 권유한다.
- 성을 은밀하고 숨겨야 한다는 분위기를 줄이기, 직접 동의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동의가 아닌 것과 동의했더라도 다시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 활용 교육
- 성폭력으로 감옥 간 사람들의 브이로그 보여주기
- 이번 설문에서도 느낄 수 있듯, 피해자가 잘못해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거라 생각하는 잘못된 개념 &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루 요일을 정해 교내 방송을 하는 것
-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 홍보
- 처벌과 낙인됨을 강조
- 우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드라마 형식의 영상물,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들이 그 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주변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지 집중해서 보여주기
-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려주면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 지속적인 교육으로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 학교에서 캠페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축제 때 부스를 설치해 참여형 캠페인 제공
- 공적으로 학교에서 열리는 개최행사에서 한 부분으로 넣거나 학생복지관 앞 거리에 한시적으로 부스 홍보
- 상대방의 확실한 의사표현 없이는 그 어떤 성적인 접촉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캠페인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 학부생 모두가 필수로 수강해야 되는 특강이나 수업으로 예방교육이 진행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노골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형식적인 성폭력 금지보다는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 범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성폭력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에 피해를 당했을 시 도움을 청하는 일조차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안 유지,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마음 놓고 찾아갈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센터에 대한 홍보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그간 교내에 성폭력 피해센터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 단순히 영상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꼬꼬무와 같은 프로그램처럼 교육을 듣는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일의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
- 신입생 음주 관련 교육
- 교양필수 과목으로 넣기

- 성범죄 예방 골든벨, 교내 캠페인 등
- 관련 기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함
-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참여 유도
- 학기 중 하루 강의실에서 시청각 교육
- 우리 대학의 인권센터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이 성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처 또한 유능하게 (피해자 보호, 가해자 응당한 처벌, 2차 피해 방지, 비밀 보장) 한다는 것을 알린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만약 내가 당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부끄럽지 않고 숨길 필요 없다는 인식을 주면 좋을 것 같다.
- 정기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학교 행사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 부스 운영
- 동영상 강의보다는 좀 와닿는 교육형태가 있으면 좋겠다.
- 최근 n번방, 텔레그램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 잘못된 성 인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성 인식 교육을 위해 본 설문조사와 같이 퀴즈 또는 ox 문제를 풀면 상품을 주는 등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올바른 성 인식의 중요성을 재차 여러차례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많이 접하게 해야 한다.
-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공지 카톡에 종종 이에 관한 사례나 교육을 공지하거나, 전공 수업시간에 앞 실태조사의 내용 같은 교육을 포함시켜야 학생들이 인지할 것이다.
- 사회봉사 학점 이수, 장학금 수여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 부여
- 인권센터에서 지원하는 업무 내용에 대한 홍보
- 성교육강의를 연다
- 성범죄자가 사회에서 재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성범죄대상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교내 예비 성범죄자가 범죄를 다짐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함.
- 익명제보 및 조속한 처리와 경찰 연계
- 주기적인 교육(연구실 안전교육 같은)
-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여성 피해자들한테 비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우기 위해 수요일 전체 공강 시간에 부스에서 예방교육관련 퀴즈를 진행한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소정의 상품이 주어진다면 참여율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 체리사회봉사처럼 성희롱, 성폭력 카드뉴스나 동영상을 만들면 사회봉사 1학점을 주는 사회봉사 과목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체리사회봉사를 수강 중에 카드뉴스,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문구를 타이핑 하고 자료수집을 하면서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육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에 만약 성희롱 성폭력을 도와주는 센터가 있다면, 그리고 피해자가 그 센터를 이용했을 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고 비밀유지가 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학교에선 이러한 도움을 주

는 센터가 있으며 비밀스럽게 일처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든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어 혹시 모를 미래의 피해자들에게 센터로의 접근을 쉽게 하게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듭니다(추가로 저는 교내에 센터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짧은 영상 제작
- 무심코 던진 말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스터와 같이 시각적인 자료로 지속적인 노출을 해야 한다. 또한 성범죄의 중대성과 처벌의 엄중함을 알려야한다.
- 소소한 상품이더라도, 상품이 있는 이벤트를 통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예방교육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SNS 공유 이벤트를 한다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더욱 예방교육을 잘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공유된 내용을 그 주변 SNS친구들이 보면서 예방의 효과가 조금은 더 좋아질 것 같다.
- 모아두고 이야기를 하거나 필수 문답 등으로 일정 점수 이하면 다시 듣게 하며, 그냥 틀어두고 어디 갈 수 없도록 중간 중간에 퀴즈들을 많이 넣고 일정 단어 이상의 서술형 작성 요망, 문제가 된다 싶은 학생들은 개인 컨택 후 상담 진행
- 현재 위와 같은 예방교육은 필수로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퀴즈를 내어 간단한 경품을 준다면 실제로 영상을 보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 캠페인
- 적극 대처 어플 개발
- 학교 차원에서 인스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가벼운 소재로 차근차근 홍보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교육이 필요함
- 일 년에 한 번 또는 그 이상 의무적으로 대면 교육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홍보 및 강좌

2) 인권센터에 바라는 점

본 조사 응답자들에게 인권센터에 대해 바라는 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권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확대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들이 다수 있었다. 또한 인권센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친근한 이미지 형성 및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를 실시해 주기를 희망하는 의견들이 있었으며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직 재학생들에게 인권센터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기 중 학생들이 인권센터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권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를 희망함

- 인권센터에 대한 홍보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피해자들이 마음 놓고 센터에 방문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 해주세요.
- 적극적으로 향상시키고 발전하기 바랍니다.
- 1. 적극적인 교내 홍보, 2.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마음 편히 찾아갈 수 있도록 비밀유지 및 피해자 보호가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 지속적인 센터인식을 위한 노력
- 파이팅!
- 인권센터의 존재가 학생들에게 더 잘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 피해자가 방문해도 될 정도로 시스템이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지를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권센터의 존재를 더 알렸으면 좋겠다.
-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역할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없습니다! 인권 보호에만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좀 더 홍보가 잘 돼야할 거 같다.
-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자도 피해자도 둘 다 말하는 것에 있어 두렵지 않은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가해자들은 정당한 차별을 받고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학교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 친근한 이미지
- 고생하십니다.
- 만족합니다.
- 비밀 유지를 통해 2차 가해를 막아주세요.
- 인권센터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 성희롱, 성폭행 피해자들을 위하여 지금과 같이 상담을 진행하고 또한 본 설문조사와 같은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재학생들에게 인권센터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많은 접촉을 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인권센터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관해서도 남일처럼 관심이 없다.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인권센터의 큰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를 입었을 때 바로 생각나는 기관이 되도록 할 것
-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실제적인 실태 조사
- 쉽고 빠르게 접촉이 가능한 신고 사이트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
- 피해자에 집중하여 고통을 최소화할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
- 인권센터에 대해 모르는 게 많은데 다양한 홍보 활동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환학생들과 내국인 학생들은 모두 평등한 대우를 학교로 부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환학생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며 내국인 학생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별 구분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에리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인권센터 존재의 유무는 알고 있었지만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참여식의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다.
-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인권센터 인식을 넓히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적극적 홍보‼
-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권센터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는 행사를 많이 하면 좋겠다.
- 더 많은 프로그램과 홍보와 캐주얼한 이벤트들
- 인권센터가 있다는 것을 조금은 더 잘 알렸으면 좋겠다. 에리카 학생들 중에서 인권센터가 뭔지, 뭐하는 곳인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 학생들의 인권을 잘 지켜주세요.
- 접근성이 부족한 것 같음
- 교육을 통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함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조사는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학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발생 현황을 확인하고, 교내에서의 발생 유형과 피/가해자 관계, 대처방식, 도움이 되었던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인권센터의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고 나아가서 안전한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총 392명으로 여성이 256명(65.3%), 남성이 133명(33.9%), 기타 성별이 3명(0.8%)였다. 연령은 20대가 387명(98.7%)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학년은 1학년에서 5학년까지 전 학년에서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소속은 공과대학, 국제문화대학, 경상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등 각 단과대학에서 참여하였고, 국적은 한국이 298명(76.0%)로 가장 많았으나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일본,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권센터가 본교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학생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필요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해 피해 지원으로부터 누락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인권센터의 설치 및 역할에 대한 인식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건처리 시에 가장 중요한 점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자 보호'라고 응답하였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시작과 끝은 피해자 보호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피해자 보호는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2차 피해방지와 피해자의 심리・정서적 지원, 법률적 지원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총 26명의 학생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희롱이 가장 많은 피해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성희롱은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성희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한가지로 나타나지 않고 복합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발생 장소는 학생들이 활동하는 다양한 장소로 확인되었는데 강의실이 9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모임 등의 회식장소(술자리 등)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6명(23.1%), 이외에도 MT 장소가 2명(7.7%), 기숙사와 피해자의 주거지가 각각 1명(3.8%)으로 확인되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는 장소나 시간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소와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확인한 결과 참고 넘어갔거나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총 17명(70.8%)으로 확인되어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도움요청보다는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방법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28] 회피 또는 비표현적 대처양식보다는 문제 중심적인 대처와 적극적인 대처, 인지적 대처를 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인 적응이 더 높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29]. 이에 피해자가 사건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지 않고, 행위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요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도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해 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성폭력 사건 이후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사건의 부정적 영향에 매몰되어,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피해 이후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으로는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는 점과 주변인들의 지지였다. 사회적 지지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우리 대학이 교내의 성폭력피해자와 관련한 부정적 인식이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 왜곡된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피해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보호와 피해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제 2 절 제언

앞서 살펴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교 인권센터가 학생들이 원활하게 접근 가능한 센터로서의 인식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인권센터는 공식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SNS)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인권 프로그램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메일 발송, 헤이영 알림, 포털공지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다. 분명 이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많은 학생들이 인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시각에서 홍보효과를 가져오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직접 인권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인권센터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부하여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정보를 상시 제공받고, 대처방안을 숙지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고, 주변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등의 효율적 방안이 있을 것이다.

둘째, 폭력예방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28) Sarah E. Ullman, *supra* note 19.
29) 권해수, 앞의 논문

실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중 실시되는 의무적 통합폭력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대상자들의 필요에 맞춘 오프라인 교육이나, 최근의 사회적 이슈와 변화를 담은 주제에 따른 심층적인 특강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최근 여성가족부 등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영상을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조사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내 및 교외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가 경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피해발생 이후 안전한 상황에서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지지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구축이 필요하다. 본 센터에서는 학생상담센터를 통해 학생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으며, 리걸클리닉을 통해 학내 구성원의 무료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교외 피해지원기관과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이 피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조사를 통해 수렴된 개선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ERICA 인권센터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30]. 이를 진행함에 있어 학생들과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의견이 반영된 프로그램 및 행사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도약이 필요해 보인다. 본 조사에서 인권센터를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수 확인되었고,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문제제기 하지 않은 이유로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염려와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따라서 안전한 공간에서 본인이 입은 피해를 의논할 수 있는 신뢰로운 기구로의 이미지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인권센터는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운영에 반영하며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30)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 누리집 참조. https://ehrc.hanyang.ac.kr

[참고문헌]

<국내 자료>

김선주 외 2인,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치심 및 사회적 지지의 변화”,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24권 제4호,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2020.

김재엽 외 3인, “음란물 이용과 사회적 교류가 성인 남성의 강간통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46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5.

김효정,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개념에 대한 고찰과 향후 과제”, 「이화젠더법학」 제16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4.

권해수,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권해수・이재창,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귀인양식 및 대처전략과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03.

권희경・박경, “성폭력 장기후유증 척도의 타당화 연구: 중, 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8권 제3호, 한국여성심리학회, 2003.

신혜정・공정식, “강간통념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행동에서 여성의 ‘명목상 저항이유’에 미치는 영향”, 제10회 안전문화포럼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안전문화학회, 2018.

심혜선 외 2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귀인양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제35권 제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이명신, “성희롱(Sexual Harassment)의 재정의: 남녀대학생의 강간통념, 성희롱 인식, 성적 괴롭힘 행동을 중심으로 경험적 재구성”, 「젠더와 문화」 제7권 제1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4.

이석재,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3권 제2호, 한국심리학회, 1999.

최인숙・김정인, “성폭력 통념수용, 대인폭력수용 및 성역할-관련 태도가 공격적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0권 제3호, 한국여성심리학회, 2015.

함덕경, “성폭력특별법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교육부,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2019.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2023.

<해외 자료>

Angela J. Jacques-Tiura & Michele R. Parkhill & Tina Zawacki, "Why Do Some Men Misperceive Women's Sexual Intentions More Frequently Than Others Do? An Application of the Confluence Mode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33(11), 2007.

Bifulco, A. & Brown, G. W. & Adler, Z., "Earlysexual abuse and clinical depression in adult life",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159(1), 1991.

Burt, M. R., & Katz, B. L.. "Coping strategies and recovery from rape",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Vol.528(1), 1988.

Kerstin Wenninger & Anke Ehlers, "Dysfunctional cognitions and adult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child sexual abuse survivor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11(2), 1998.

Leana A. Bouffard & Jeffrey A. Bouffard "Understanding Men's Perception of Risks and Rewards in a Date Rape Scenario",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Vol.55(4), 2011.

Lonsway, K. A. & Fitzgerald, L. F., "Rape myths: In re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18(2), 1994.

Norris, F. H., "Epidemiology of trauma: frequency and impact of different potentially traumatic events on different demographic group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0(3), 1992.

Park, J. W.,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1985.

Sarah E. Ullman & Henrietta H. Filipas & Stephanie M. Townsend & Laura L. Starzynski, "Psychosocial correlates of PTSD symptom severity in sexual assault survivor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20(5), 2007.

Yank D. Coble & A. Bradley Eisenbrey & E. Harvey Estes & et al., "Violence against women: Relevance for medical practitioner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267(23), 1992.

UN Women, Handbook for National Action Plans on Violence against Women, 2012.

<기타 자료>

방심위 "작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 시정요구 3.2배 증가", 2025.02.12. 연합뉴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2107500017?input=1195m

[부록]
2024년도 한양대학교 ERICA 재학생 성의식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에서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한 캠퍼스 구현을 목적으로 <2024년도 재학생 성의식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본 조사의 통계,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이며 작성해 주신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 유지가 보장됩니다. 또한 본 설문지의 각 질문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각 문항을 잘 읽고, 평소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Part A. 기초 정보 문항 수 5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

아래와 같이 본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성의식 실태조사 연구, 통계 활용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별, 연령, 소속, 이메일 주소, 기프티콘 제공 목적 연락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조사를 위한 목적 달성 후 1개월 이내 폐기

1. 동의 2. 동의하지 않음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3. 기타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1. 19~29세 2. 30~39세 3. 40~49세 4. 50~59세
5. 60세 이상

3. 귀하의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학부 1학년 2. 학부 2학년 3. 학부 3학년 4. 학부 4학년
5. 학부 5학년

4. 귀하의 소속은 어떻게 되십니까?

1. 공과대학 2. 소프트웨어융합대학 3. 약학대학 4. 과학기술융합대학
5. 국제문화대학 6. 언론정보대학 7. 경상대학 8. 디자인대학
9. 예체능대학 10. 융합산업대학원 11. 기타( )

5. 귀하의 국적은 어디에 해당 되십니까?

1. 한국 2. 한국 이외의 국적( )

Part B. 성폭력 통념 문항 수 5

※ 다음 문항들을 읽고 평소 자신의 경험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성(gender)에 기반하여 응답해 주세요.

6. 성폭력에 대한 인식

※ 다음 문항들을 읽고 평소 자신의 경험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여성 행동에 대한 오해	여자가 친근감 있게 남자를 대하는 것은 성적 접촉을 허용한다는 표시다.	①	②	③	④	⑤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그와의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①	②	③	④	⑤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락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①	②	③	④	⑤
피해자 책임 전가	노출이 심한 여성의 옷은 성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여자가 모르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다가 성폭력을 당했다면 그 여자의 잘못이다.	①	②	③	④	⑤

Part C. 인권센터 및 사건처리에 대한 인식 문항 수 6

7. 우리 대학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등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아니다 5. 전혀 아니다

8. (위 7번에서)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술형)

_____

9. 우리 대학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 매우 잘 안다 2. 잘 안다 3. 보통이다 4. 모른다 5. 전혀 모른다

10. 우리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면 잘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아니다 5. 전혀 아니다

11. (위 10번에서)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2.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을 것 같아서
3.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 생길까 염려되어서
4.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5. 비밀 유지가 잘 안될 것 같아서
6. 기타 ( )

12. 귀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순위까지 응답)

1. 피해자 보호
2. 비밀유지
3. 정당한 처벌
4. 신속한 사건처리 및 2차 피해방지
5. 공정한 사건처리
6. 기타 ( )

Part D.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문항 수 14

인권센터는 학내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발생시 상담 및 조사, 사건처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

※ 다음 문항들을 읽고 평소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13. 귀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4. 귀하께서 경험한 성희롱·성폭력의 유형은 무엇이었습니까?

1. 성희롱(언어적,신체적,시각적 등)
2. 성추행
3. 성폭행(강간 등)
4.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등)
5. 기타 (　　)

15. 귀하께서 경험한 성희롱·성폭력의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1. 선배
2. 후배
3. 동기
4. 직원
5. 교수
6. 강사
7. 조교
8. 외부인
9. 기타 (　　)

16. 성희롱·성폭력 피해시 가해자의 성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 남성　　2. 여성　　3. 잘 모름

17.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1. 강의실
2. 기숙사
3. 동아리방
4. 사무실
5. 연구실
6. 피해자 주거지
7. 가해자 주거지
8. 회식장소(술자리 등)
9. MT장소
10. 온라인공간(SNS등)
11. 기타 (　　)

18. 성희롱·성폭력피해 발생시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1. 경찰에 신고
2. 인권센터에 신고
3. 학내 기관(소속대학, 학생회 등)에 도움요청
4. 외부 기관(상담소 등)에 도움요청
5. 가족 및 친구와 상의하였으나 문제제기 하지 않음
6. 그냥 참고 넘어감
7. 기타 (　　)

19. (위 18번에서) '가족 및 친구와 상의하였으나 문제제기 하지 않음, 또는 그냥 참고 넘어감' 으로 응답

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소문이 날까 봐 두려워서
2.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되어서
3.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4.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5.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6. 기타 ( )

20. (위 18번에서) '인권센터에 신고' 한 경우 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아니다 5. 전혀 아니다

21. (위 20번에서)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내가 원한 만큼의 처분(징계 등)이 나오지 않아서
2. 비밀 유지가 되지 않아서
3.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4. 사건처리가 오래 걸려서
5. 기타 ( )

22. 성희롱·성폭력 경험이후 일상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었음
2. 가족 및 지인들의 시선
3. 심리정서적 어려움(수면장애, 불안, 우울 등)
4. 신체적 외상(병원 치료 필요)
5.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6. 학업 및 취업에 영향
7. 기타 ( )

23. 다음중 성희롱·성폭력 피해회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은 무엇이었습니까? (2순위까지 응답)

1. 주변인들의 지지
2. 제대로 된 처벌
3. 상담지원
4. 가해자와의 분리
5. 기타 ( )

24. 귀하는 본인이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내용을 인권센터에 얘기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1. 있다
2. 없다

25. 귀하는 주변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1. 있다
2. 없다

26. 주변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은 사람이 있다면 인권센터 방문을 권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1. 있다　　2. 없다

Part E. 기타　　문항 수 2

27.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28. 인권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2024 성의식 실태조사
–ERICA 학부 재학생을 중심으로–

- 발행일 2025년 2월
- 발행처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학생회관 1층 인권센터
  (031) 400–4337
  ehrc@hanyang.ac.kr

- 연구책임 홍정현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 책임연구원)